

# 새로운 틀에 새로운 실질을

김병익

출판저널 편집인

지난해 우리 출판계는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으로 출판정책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국가번호를 배정받아 ISBN과, 이에 이은 POS를 도입하여 활용할 차비를 차리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몇해 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게 된 뒤를 이어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도서출판의 관행을 오늘의 문명사회적 실정에 맞추려는 일련의 작업들 위에 선 일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출판산업은 90년을 전후해서 비로소 전시대의 주먹구구식 제작과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컴퓨터 등의 도입과 더불어 현대화, 국제화, 합리화, 체계화로의 틀을 만들어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그 틀을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국내의 저작권법이 엄연히 지켜보고 있는데도 무책임한 해적출판이 여전히 횡행한다면, 제작과 영업의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과 기제들이 정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걸치레로만 혹은 그나마도 외면한 채 책을 만들고 판다면, 이렇게 해서 나온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음에도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 의미가 거의 없는 소모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으로 되고 만다면, 그들은 무용한 것,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이제 이 틀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의 출판문화를 현대화, 국제화의 위상으로 진전시킬 것인가, 이 틀들을 만들게끔 만든 오늘의 독특한 문화적, 지적 정황을 어떻게 내재화시켜 우리의 책들로 하여금 후기 산업사회의 중심적 매개물로 살아남아 역할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모두어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주제는 출판문화를 감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심리-정서적 변화들에 대응하여 그것들을 우리의 출판문화가 감싸고 함께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전시대로 우리의 책의 문화가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해줄 책임있는 전략들을 모색하며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이 과제를 위한 모색과 실천의 가장 중요한 길은 출판행위의 지적 요소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출판의 이론과 실재를 위한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개발과 교육이 출판계 전반이 투자해야 할 부문이라면,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용, 저자와 역자의 확대, 기획 편집 교열의 능력함양 등이 개개 출판사들이 힘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발행인의 문화의식, 출판전문인의 장인의식과 그 자부심의 함양은 물론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세기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일구어온 틀과 그 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작업과 그 결과들을 새로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진정, 새로운 틀에 새로운 실질을 담아낼 수 있는 내실의 차비를 차려야 한다. 그것이 출판행위의 지적 투자에서 출발하기를 바란다.

뉴스 2 “아동용 도서 여전히 문제 많다”·외

양케이트 4 1992년을 향한 출판인의 목소리

김신혁 / 송순현 / 조근태 / 김종해 / 강해작  
윤재승 / 장석주 / 김경희 / 김철영 / 이경훈  
오원진 / 임성렬 / 김종수 / 장종택 / 손영일  
박종만 / 김종규 / 조상호 / 차민도 / 한영제  
전양경 / 서창교 / 최선호 / 김병준 / 박은주  
김직승 / 전병석 / 임성규 / 백석기 / 이종춘  
홍지웅

연재기획 12 책 전달 채널 다양화를 위한 제언 ① — 이중한

서평 14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 허홍식

화이트헤드 「과정과 실재」 — 정연홍

15 헤르만 「하이젠베르크」 — 장희익

또하나의문화 「새로 쓰는 성 이야기」 — 강숙자

16 정운영 「경제학을 위한 변명」 — 장상환

최시한 「낙타의 겨울」 — 김경수

17 유재주 「북국의 신화」 — 김종희

유순하 「우물안 개구리」 — 이남호

초점 18 책으로 예견하는 미래의 세계질서

출판화제 20 역사인물 복원으로 한국사 빈터 메운다

화제의 책 21 에디터쉽 정착 위한 편집실무 지침서

이 책 그 사람 22 「삶의 문화 희망의 노래」 펴낸 김창남씨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펴낸 황주리씨

23 「종말에 관한 보고서」 펴낸 이진우씨

「황금빛 넓은 침대위의 여자」 펴낸 이연희씨

현장취재 24 가판대 베스트셀러, 문제는 없는가

해외출판 26 민족적 자긍심 지키는 핀란드 출판 — 이희재

세계의 책 28 종교간의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

자료 30 1991년 문화부 추천도서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 / 김흥진

## 편집자의 말

임신년 새 아침이 밝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으랴 하는 옛말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처럼, 희망으로 채색된 설레임 속에서 맞이하기 마련인 게 바로 새해 새 아침이다.

신년호로 꾸며진 이번호 출판저널에는 우리 출판인들의 새해 계획과 다짐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우리 출판의 조감도를 거칠게나마 그려볼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와함께, 현재 거의 전적으로 서점에만 국한돼 있는 책의 전달채널을 보다 다양하게 확산시키려면 어떤 노력과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한가를 점검해나갈 연재기획 「책 전달 채널 다양화를 위한 제언」을 새로 선보인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알림 연말연시 정례휴가에 따라 1991년 12월 20일자를

1992년 1월5일자(제97호)로 발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